

월 양 계

4월 1호

- ◎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 아산, 천안, 안성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월 하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또다시 시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방역당국은 물론 농가들까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천안의 시경계지역 안에서는 또다른 타입의 고병원성인 H7형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철새에서 추가로 H5 형질형이 나타나는 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시질병센터 설치 등 차후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ND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52억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ND는 여전히 양계업계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농가들은 오히려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수의사들은 관남 백신의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정부측에서는 백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맞는 백신프로그램을 통해 막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ND는 HPAI와 같이 1종 법정전염병이다. 백신효용성, 살처분보상 문제 등 ND박멸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였다. 3월말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만 아직도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기간을 두고 더 협상이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모든 잣대를 3월말에 맞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 등을 동원해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지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와의 협상여부에 따라 차후 있을 중국과 유럽과의 FTA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퍼주기식, 명분없는 협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 북한에 지원되는 화학비료를 계분 등 축산부산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도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부당국에서도 깊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성사될 경우 계분처리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